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오후찬양예배 후에 '임직자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3. 설 명절 연휴로 인해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는 쉬겠습니다. 단, 새벽기도회는 12일(월)~13일(화)까지 가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뒤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지기 바랍니다. 고향 잘 다녀오시고,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김윤식 집사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쉽니다.
6. '몽골 단기선교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교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정은 7월 16일(월)~21일(토)까지 진행됩니다. 1차 모집마감일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은 개별적으로 담임목사님께 알려주세요.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2월 4일	2월 11일	2월 18일	2월 25일
예배기도(오전)	신태식 장로	유중열 집사	김윤식 집사	권용기 집사
예배기도(오후)	오효근 집사	정진숙 권사	설연휴	목장주일
주일식사담당	헵시바목장 (김금옥 권사)	양메목장 (황희용 권사)	늬바목장 (유숙정 권사)	로뎀목장 (정진숙 권사)
토요일청소	둘로스목장	주사랑목장	에덴목장	갈렘목장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새롭게 임직을 받는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준비되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환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함안)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 \*예배로 부름 ..... 인 도 자
- \*성 시 교 독 ..... 교독문 12번(시편 19편) ..... 다 같 이
- \*경 배 찬 송 ..... 10장(통 34장) ..... 다 같 이
- \*참 회 기 도 .....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양과 기도

- 찬 송 ..... 391장(통 446장) ..... 다 같 이
- 대 표 기 도 ..... 유중열 집사

봉헌과 말씀

- 성 경 봉 독 ..... 막 10:17-22 ..... 인 도 자
- 자녀를 위한기도 ..... 허영진 목사
- 봉 헌 기 도 ..... 인 도 자
- 말 씬 선 포 ..... '믿음의 결단' .....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 교 회 소 식 ..... 다 같 이
- \*결 단 송 ..... 620장 ..... 다 같 이
- \*축 도 .....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단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어라

요 15장 7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 전도사

- 경배와 찬양 .....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 다 같 이
- 목 상 기 도 ..... 은혜를 구하며 ..... 다 같 이
- 찬 송 ..... 410장(통 468장) ..... 다 같 이
- 기 도 ..... 인 도 자
- 특 별 찬 양 ..... 누 구 든 지
- 성 경 봉 독 ..... 삼상 23:1-5 ..... 다 같 이
- 말 씬 선 포 ..... '다시 묻자온대' ..... 허영 전도사
- 기 도 ..... 인 도 자
-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 찬 송 ..... 304장(통 404장) ..... 다 같 이
-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 요 예 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설 명절 연휴로 인해 쉽니다.

금 요 기 도 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설 명절 연휴로 인해 쉽니다.

새 벽 기 도 회 새벽 5:30 시 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67:1-7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1)-②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다시금 시작이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심기일전해서 출발한다. 그렇게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그 첫 달이 그림자만 남긴 채 꼬리를 내 뺐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앞에서 늘 열심을 다하지 못한 채 놓쳐버린 시간의 아쉬움이 크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보통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애써 자위해보지만, 그럼에도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게 마련이다. 이것도 문제지만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했다.

사실 인생이라는 크고 험난한 산을 오르며 힘겨울 때마다 남 탓하고 상황 탓하며 원망하기 일쑤다. 하지만 속절없이 맞는 세월일 지라도 때로는 자신을 이겨내고 도전한다면 삶의 가치는 더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은 없겠지만 진정한 승리의 기쁨도 맛볼 수 없을 테니까. 변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려는 힘겨운 쟁투가 있을 때, 비로소 조금씩이나마 변화의 물꼬가 트인다는 것을 기억하자. 아무도 두 번 인생을 살 수는 없는 시한부적 삶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작은 인생을 강건해도 고작 80년 정도 맞는다.

설이다. 음력으로 새해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 이래요." 윤극영이 만든 동요 <설날>의 가사 일부다. 까치 설날은 어제라는 지나간 시간이지만, 우리 설날은 내일의 소망을 잇는 오늘이다. 다시금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요즘 모두들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다.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작은 일에도 혼을 쏟아 내듯이 열정을 다하여 부단히 노력한다면, 기쁨으로 성취감을 맛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오랜 기간 숙성된 영감이 한순간 뿜어져 나와 훌륭한 즉흥곡이 탄생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다시금 시작이다.

Written by 허영진